

## 책이 마음을 잇는 곳 “책방다독다독”

신보경 책방다독다독 대표

“딱~~ 다독다독이 일곱 살 생일을 맞이하다니 놀랍다 놀라워.”

“벌써 그렇게 됐어?! 세월 빠르다.”

“신기하다 신기해. 그 작은 공간에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도대체 무슨 힘이야?!”



책방내부전경

### 책방다독다독의 탄생

7주년을 앞둔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여행 다니면서 만난 다른 도시 동네책방들을 보면서 울산에 동네책방 하나 없는 게 약간은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 싶은 생각과 더불어 책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만들 어가고 싶다는 의지로 2017년 6월 10일, 울산지역 동네책방 1호로 문을 열었다. 어느새 햇수로 8년을 꾸려올 수 있었던 힘은 동네 주민의 애정과 더불어 울산 전 지역에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이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장생포, 남목, 구영리, 강동 등 책에 끌려 사람에 끌려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는 “다독다독”이라고들 말해주니 뿌듯함과 자부심이 뽐뽐이다.

## 책이 마음을 잇는 곳

책방다독다독의 슬로건(?)은 '책이 마음을 잇는 곳'이다.

책이 어떻게 마음을 이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시작한 것이 <낭독모임>이다. 다독다독에 오는 주 연령층은 30~50대 주부층이다. 주부야말로 얼마나 일이 많은가? 양육과 집안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거의 쏟아 붓는 퇴근도 휴일도 없는 극한직업이니 책을 읽고 만나는 모임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조금 느리더라도 모여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낭독모임 <책갈피>는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는 다독다독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모임구성원들 중에는 6년차 모임을 이어가는 멤버도 있다. 오랜 시간 책을 통해 삶을 나누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쉽게 말하자면 끈적이지 않는 다정함이 모임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벽돌책 깨기> 모임으로 「코스모스」, 「충,균,쇠」등 혼자 읽기 쉽지 않은 책들도 함께 읽어갔고 <한국대하소설읽기>모임으로 「토지」, 「태백산맥」, 「객주」등 한국문학의 큰 줄기들도 읽어낼 수 있었다. 지금도 <달책>과 <제3세계문학읽기>, <일시찾> 등의 독서모임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는 비대면 독서모임을 진행했다. 연결이 끊어지고 소통이 부재하던 시대 우리는 화면을 통해 모임을 이어갔고 극한의 고립감들을 이겨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던 지원금은 모임제한업종이 아니라며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그 덕에 소모임들을 지속할 수 있었고 간간이 들리는 발걸음들을 환대할 수 있었다. 그 시절 다독다독에 와 코로나 블루를 비롯한 우울감을 털어내고 간 영혼들을 잇을 수가 없다. 지금은 안녕하시기를...



독서모임 <달책>팀의 야외소풍

## 지역문화발전소 다독다독

다독다독은 어린이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다. 울산지역의 역사적 인물들을 찾아가는 <지역 역사 탐방>은 꽤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고현 박상진외사 생가를 비롯 외솔 최현배선생, 성세빈선생과 보성학교 전시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찾아가서 울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보기도 했다. 이 또한 코로나 때 문을 닫으면서 다시 업무를 못 내고 있는데 머지않아 다시 시작해 볼 예정이다.



어린이영화제작프로그램 발표회

요즘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발전소가 되어 어반스케치 교실을 비롯, 어린이 영화제작 프로그램, 어린이작가 되어보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 영화감독들과 함께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진행 중이다.

5월 15일에는 울산 지역 총 5곳의 동네책방과 가죽공방이 <골목장>을 열었다. 책방 골목에서 책방마다 책방지기들이 큐레이션한 재미나고 독특한 책들과 수제 빵, 핸드메이드 제품, 제로웨이스트 물품들을 판매했다. 특히 다독다독에 오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 셀러가 되어 흥겨움을 더했다. 이번을 계기로 지역의 동네책방들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연대해 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책방골목장을 마치고 지역 책방대표들과 함께

이제는 6월 1일에 다독다독 일곱 살 생일잔치를 준비 중이다. 김해에서 선배가 활동하고 있는 실내악단의 공연을 비롯, 울산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기타듀오 우진의 연주와 노래, 다독문화교실 수강생들의 어반 스케치 전시회와 다독어린이들의 장기자랑이 어우러진 한마당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책방 7주년 생일 포스터

##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다독다독은 책이 마음을 이어 동네를 넘어 울산의 한데 어우르는 울산의 사랑방이자 문화발전소가 되어 가겠지. 지금의 다독다독이 있도록 애정과 격려, 힘을 실어주신 마음과 발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0년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단 더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오월의 쾌청한 오후, 놀러가고 싶은 엉덩이를 눌러 앉히며 마침표를 찍는다.